

4·9 총선 현장

김효석 "지역발전 위해 최선 다하겠다"



○김효석 광주 광산구를 예비후보는 3일 하남산단 글로벌 광통신과 나영산업 등을 방문, 경영자 및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김 의원은 이어 "당 지도부나 공심위에서도 수도권 출마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광주·전남 정치의 중심에 서달라고 격려했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강조.

김영진, 자치센터 찾아 생활체육 의견 수렴



○김영진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는 3일 화정동 염주체육관 체육시설과 주민자치센터 요가교실을 방문, 주민들과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렴.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주5일 근무제 정착과 함께 늘어난 생활체육시설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

강운태 "백운광장 상권 활성화에 최선"



○강운태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남구가 누구나 살고 싶고, 또 매력있는 행복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

김 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개인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백운고가 철거와 연계한 우회도로 개설, 백운광장 주변의 상권활성화, 도로교통망 확충, 문화복지 종합관 건립 방안 등을 제시.

조영택 "환경미화원 근무 여건 개선"



○조영택 광주 서구 예비후보는 3일 양동시장을 찾아 환경미화원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

김 후보는 이날 "환경미화원들이 연일 새벽 근무로 지쳐 있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회에 입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

'김동신 후원회' 회장에 노진영씨 선임



○김동신 광주 북구 예비후보는 3일 북구 선관위에 '김동신 후원회' 등 록을 마치고 표발같이를 가속화. 후원회장으로 선임된 노진영 전 목포대 총장은 "김 후보는 신의와 열정 그리고 전문성을 두루 갖춘 지역의 참 일꾼"이라며 "고향을 위해 봉사하려는 김 후보를 최선을 다해 후원하겠다"고 지지를 표명.

이용섭, 하남산단 근로자들과 간담회



○이용섭 광주 광산구를 예비후보는 3일 하남산단 글로벌 광통신과 나영산업 등을 방문, 경영자 및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이 후보는 "광주가 국내의 기업이나 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끌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국회에 입성, 호남고속철, 목포·광양고속도로 조기 개통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심재민 "책임지는 정치 전형 보여 줄 것"



○심재민 광주 광산구 예비후보는 3일 "새정부에서 광주·전남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사업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다"고 성토.

심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 정례적인 보고회를 통해 추진사항을 지역민들과 공유하는 등 '공과 과'를 모두 인정하는 책임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겠다"고 선언.

임현모 "책신 공천만이 민주당 살 길"



○임현모 광주 북구 예비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합민주당이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선 참패와 실패한 참여정부로부터 자유로운 참신한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

임 후보는 "현재 광주에는 대선 참패나 참여정부의 실정에 책임을 지려는 현역 의원 또는 정치 고위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다"며 "이들은 한나라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광주시민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비판.

정기남 "종합적인 재난방지체계 구축해야"



○정기남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3일 새벽 진월동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위로.

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책임자 규명·처벌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인 재난방지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며 "18대 국회에 입성하면 재난방지 관련법의 제·개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

오형근 "재래시장 활성화" 의견 청취



○오형근 광주 북구 예비후보는 3일 서방시장 및 말바우재래시장 상인들을 만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

오 후보는 이날 "재래시장 상인들이 앞장서서 구대정치의 재현을 막고, 유능하고 참신한 일꾼을 뽑아 달라"며 "통합민주당이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전문적인 새 인물로 공천 물갈이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

김태욱 '광주 동구 선거사무소' 개소



○김태욱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오는 5일 오후 2시 조선태 역 금석빌딩 2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표발같이를 본격화할 계획.

전 광주케이블TV 사장이자, 문화예술 전문가를 자임하는 김 후보의 이번 개소식에는 이명박 정부의 최고 실세인 정두언 의원을 비롯 동구지역 주민과 많은 문화·예술인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관심.

서정성, 유권자들과 '대면 접촉' 강조



○서정성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3일 걷거나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방법으로 유권자들과 접촉 기회를 늘리는 등 민심잡기에 주력.

서 후보는 이날 "시간은 더 걸리지만 승용차를 이용할 때보다 훨씬 많은 지역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라며 "차량 10부제 등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

유종필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 추진



○유종필 광주 서구 예비후보는 3일 초등학교 학생들의 개학과 관련,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를 추진 하자"고 제안.

유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학생들의 놀이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놀이터 리모델링을 통해 낡고 위험한 놀이기구를 교체하거나 보수하고, 천연일물적 놀이기구 대신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놀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신현구 "발로 뛰는 정치 펼치겠다"



○신현구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는 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발로 뛰며 주민의 아픈 곳을 보듬어주는 정치를 펼치겠다"며 선거운동을 본격화.

신 후보는 "10년 넘게 국회보좌관·국회정책연구원 등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를 견제할 것"이라며 "앞으로 발로 뛰며 지역 현안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

김화진, 남구 노인 대상 배식 봉사활동



○김화진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3일 관내 사회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며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바다 표발잡기에 주력.

김 후보는 이날 남구 양지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노인들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활동을 벌이고 노인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민심잡기에 분주.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비방·흑색선전·공무원 개입 등 모든 불법 선거운동 단호 대처”

■ 오세옥 광주시선거관리위원장



오세옥 광주지방법원장이 제18대 총선을 40여 일 앞둔 지난달 25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장으로 취임, 본격적인 선거 관리에 착수했다. 오 위원장은 이번 총선이 정권교체 직후에 실시되는 만큼 후보자 간 경쟁 과열로 금품·향응 제공과 같은 불법 선거행태가 확산할 것으로 우려했다. 3일 오 위원장으로부터 이번 총선 관리에 임하는 자세와 대책을 들어봤다.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전망은.

▲정권교체가 이뤄진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는 점에서 정당·후보자 간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 받는 잘못된 선거행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 관리 방침이 있다면 말해 달라.

▲"바로 흠 없는" 선거관리를 하겠다. 선거관리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사전에 확보, 효율적인 선거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는 것은 물론, 선거관리 과정에 정당·후보자 측 대리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흠 없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예이다. 또 비방·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관여, 각종단체·사조직 이용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만큼 단호한 법 집행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광주시민의 투표행태를 어떻게 보는지.

▲광주는 역대선거에서 비교적 높은 투표 참여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선거바람이나 연고에 따라 너무 쉽게 한 표를 행사한 것은 아닌지 나름대로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 같은 투표행태가 결과적으로 지역발전과 국민통합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광주시민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면.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일은 자신과 이웃을 범법자로 만들고, 지역사회의 불신을 조장하며 금전적으로 크게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 또 혈연, 지연, 학연 등에 얽매이지 말고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 등을 잘 비교·선택해 소중한 한 표를 바르게 행사해 주기 바란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박지원 "김현철과 비교하지 말라"

"난 개인비리만 상관 없어" -광역의원 10명 "박지원 지지"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3일 한나라당 공천배제 기준에 걸려 공천신청을 포기한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 케이스를 자신 및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 의원의 거취와 연계시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김현철씨와 박지원, 김홍업을 함께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목포에 공천을 신청한 박 전 실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저는 일단 공천(배제)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현철씨는 국정농단을 했다는 사실이 적시돼서 엄단을 받았지만, 저는 민족통일을 위해서 북한과 접촉을 했고 이것은 성공적이었다"며 "대북송금특검 과정에서 제가 150억원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검찰이 추적해서 한 푼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져 무죄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홍업 씨 문제만 하더라도 한마디로 조작수사의 결과"라면서 "김홍업 씨의 친구인 김성환씨가 허위진술을 해서 자기가 살려고 했지만, 이 분이 4년간 복역하고 만기출소한 뒤 작년에 양심선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황정호 의원과 김영수 의원 등 목포시의원 10명은 이날 목포시의회에서 박 전 실장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표명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TESOL featuring English teacher recruitment, TESOL certification, and various educational services. Includes text like '영어교사 양성과정 입학생모집' and 'TESOL 자격증과 학위증서 同時 취득!'.